

서울시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 수행 근거 기반 청년정책 추진 디딤돌 마련

서울청년패널조사, 서울시 청년정책 근거 마련·청년연구 활성화 목적으로 수행

서울청년패널조사(SYPS: Seoul Youth Panel Study)는 서울시 청년정책 수립과 실효성 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과 청년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횡단면 조사(cross-sectional study)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 삶의 다차원적 변화양상과 생애주기의 이행경로를 추적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tudy)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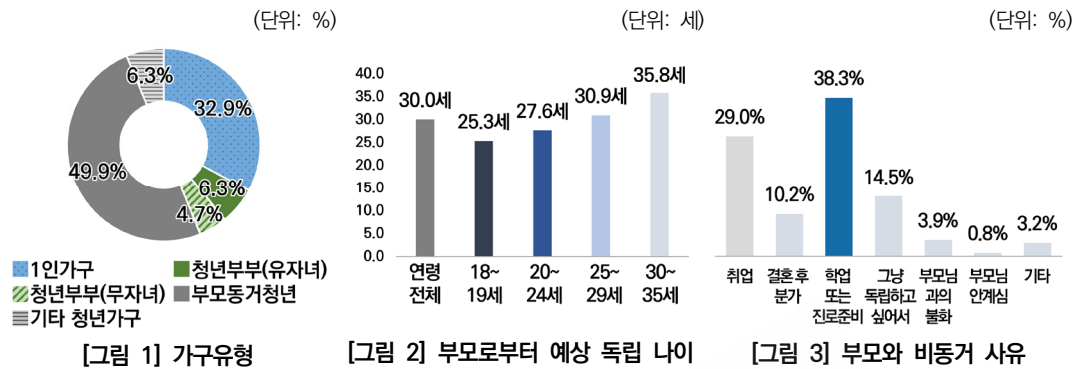
이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2021년 11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내국인이며 목표 표본 규모는 5,000명으로 설정하였다. 조사영역은 교육·훈련, 일자리, 경제, 주거, 삶의 여건과 인식, 정책 경험과 평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삶의 변화 등으로 구성했으며 삶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영역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4월 1일까지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으로 표본 구축은 전문면접원의 가구 방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 응답은 조사 참여 의향과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조사 링크(URL)를 발송하여 응답자가 컴퓨터(CAWI)나 모바일(CAMI)로 인터넷상에서 직접 응답하는 방식(자계식)으로 수행하였다. 표본설계와 관련하여 표본추출틀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20년 기준 서울시 18,748개 집계구를 활용했으며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s)을 활용해 1,500개 표본(조사) 집계구를 임의로 추출하였다. 임의로 추출한 집계구 1개당 3~4명의 패널을 구축하는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표본으로 추출된 패널은 QGIS 프로그램을 활용해 응답자 주소지와 집계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응답자 모바일 검증과 응답오류 검증을 거쳐 5,194명의 최종 유효표본을 구축하였다.

[표 1]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SYPS: Seoul Youth Panel Study) 조사 개요

| 구분 | 내용 |
|---------------|---|
| 목표 모집단 및 표본규모 | 목표 모집단: 2021년 11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내국인 |
| 조사 기간 | 2021년 11월 1일 ~ 2022년 4월 1일 |
| 조사방법 | 가구방문 패널 구축 및 온라인 자계식 응답 |
| 표본설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추출틀: 2020년 기준 서울시 18,748 집계구 - 표본추출방법: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s) - 표본 집계구: 1,500개 |
| 최종 표본 | 유효표본 5,194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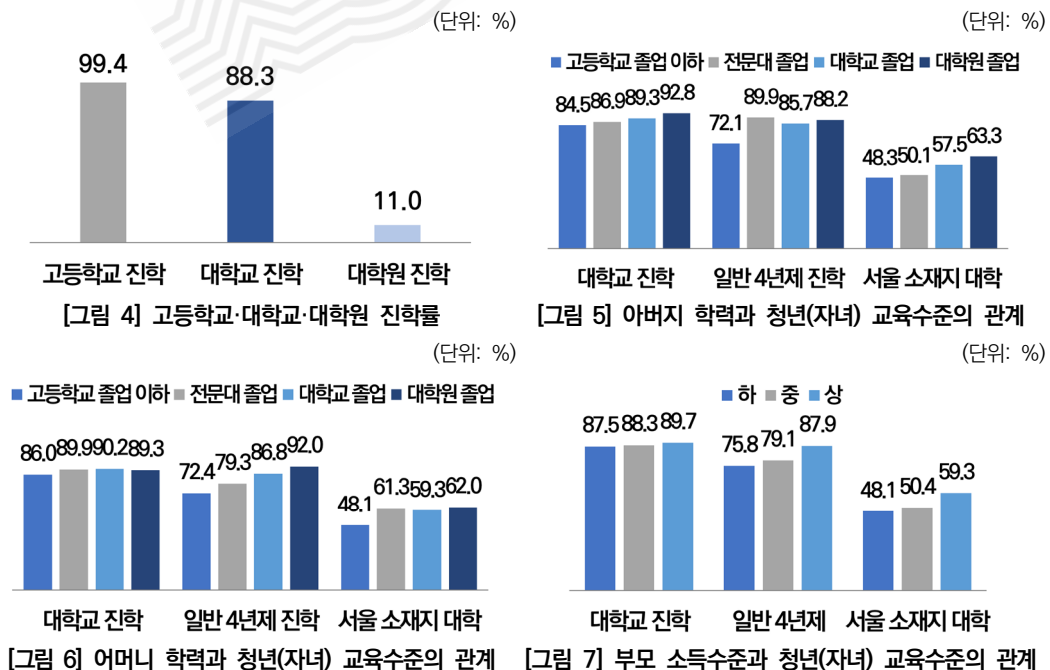
청년 1인가구는 32.9%, 부모동거가구는 49.9% ... 예상 독립나이는 평균 30세

서울 청년의 가구유형 분석 결과, 1인가구는 32.9%로 나타났으며 부모동거 가구는 49.9%로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이 예상하는 독립 나이는 평균 30세로, 연령이 많을수록 예상하는 독립 나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청년들은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이유로 학업 또는 진로준비(38.3%)나 취업(29.0%)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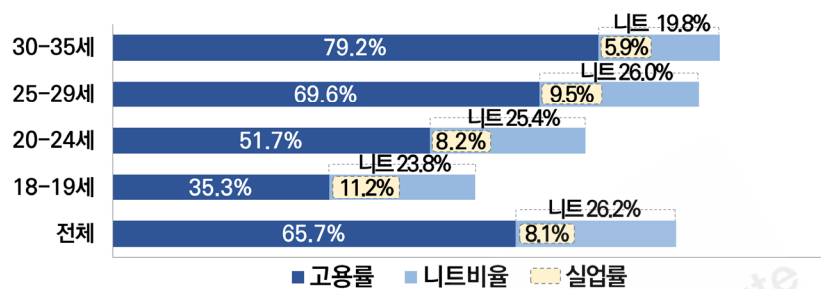
대학진학률은 88.3% ... 청년 교육수준은 부모의 교육·경제수준과 밀접한 연관

서울 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88.3%로 조사되었으며 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자녀)의 대학교 진학률, 일반 4년제 대학교 진학률, 서울 소재지 대학교 진학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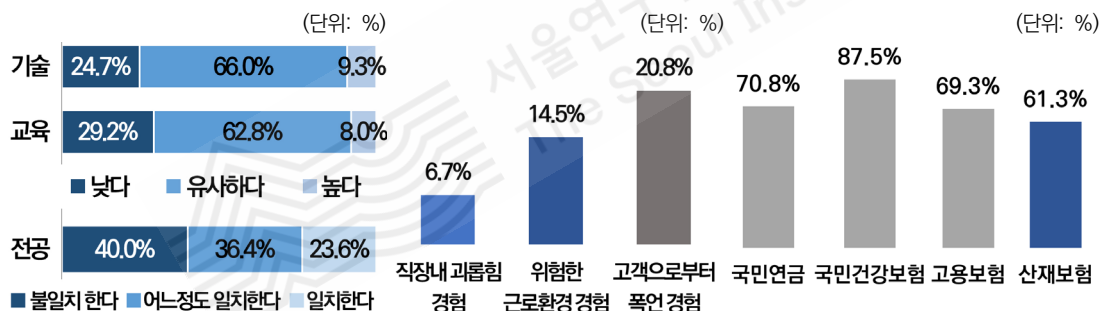


청년 고용률은 65.7% … 전공·노동시장 미스매치 현상 뚜렷하고 근무환경 열악

서울 청년의 고용률은 65.7%, 실업률은 8.1%,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비율은 26.2%로 조사되었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고용률이 높았고, 25~29세는 니트족 비율이 26.0%로 높게 나타났다. 본인의 전공 분야와 현재 일자리의 직무가 불일치한다는 응답은 40.0%로 전공과 직무가 일치한다는 응답(23.6%)보다 약 1.7배 높게 나타나 전공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이 두드러진다. 또한, 현재 취업자 중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경우는 6.7%, 위험한 근로환경에 노출된 경우는 14.5%,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는 경우는 20.8%로 조사되었다. 이는 결코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상당수의 청년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가입률은 61.3%, 고용보험 가입률은 69.3%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림 8] 고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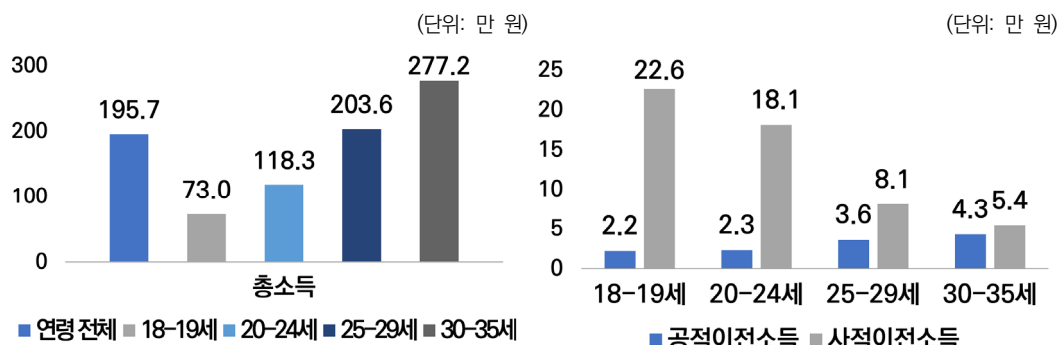
[그림 9] 직무적합도

[그림 10] 근로환경

[그림 11] 사회보험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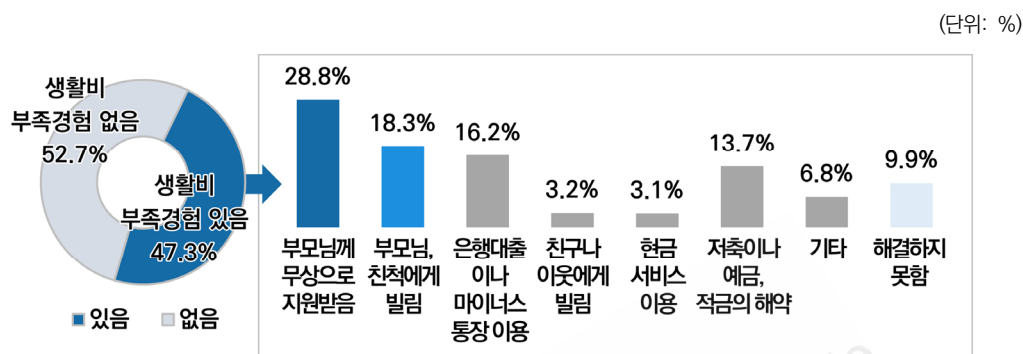
월평균 소득 195만원, 청년 47.3% “생활비 부족 경험” … 부모 경제 의존도 ↑

서울 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약 195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 월평균 소득은 18~19세는 73만 원, 20~24세는 118만 원, 25~29세는 203만 원, 30~35세는 277만 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 역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대와 30대 간 소득격차가 크다. 나이가 많을수록 사적이전소득은 감소하고, 공적이전소득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연령 증가에 따른 사적이전소득의 감소 폭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의 증가 폭은 크지 않다. 한편, 47.3%의 청년은 생활비 부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해결책은 부모의 손을 빌리는 경우(무상으로 지원받음 28.8%, 부모님, 친척에게 빌림 18.3%)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12] 연령별 월평균 총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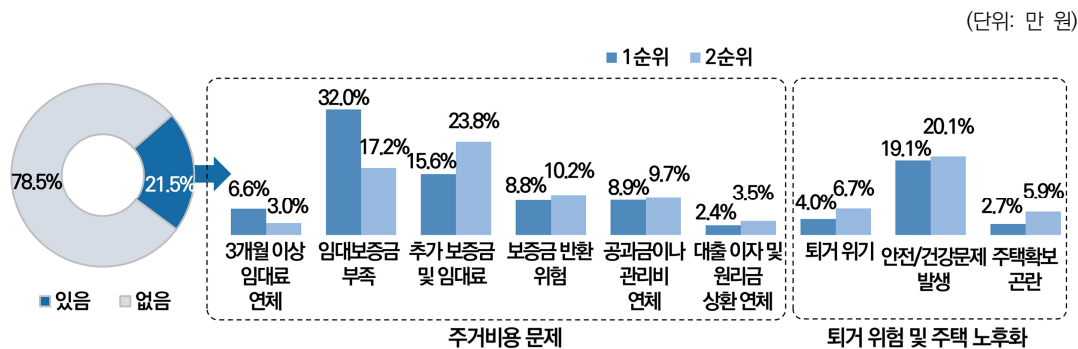
[그림 13] 연령별 사적이전·공적이전소득 비교



[그림 14] 생활비 부족 경험과 해결방법

부모동거가구는 자가, 기혼가구는 전세, 1인가구는 월세 비율이 가장 높아

서울 청년의 가구유형별 점유형태를 분석한 결과, 부모동거 가구는 자가 비율이 53.2%, 자녀가 없는 기혼 가구는 전세 비율이 60.2%, 자녀가 있는 기혼 가구도 전세 비율이 46.8%, 1인가구는 보증부 월세 비율이 50.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한편,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17.1배로, 청년이 연소득에서 지출을 전혀 하지 않고 17년간 모아야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서울 청년 중 21.5%는 주거와 관련된 불안 상황을 경험하였고, 주거불안 상황의 74.2%(1순위 기준)가 주거비용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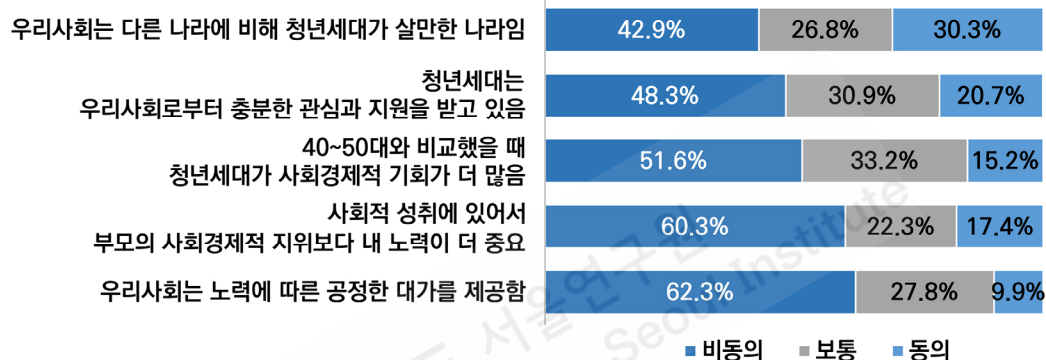
[그림 15] 주거불안 경험

청년 34.2%는 우울증상 의심 … 60% 이상 “노력과 관련된 공정성에 부정적”

서울 청년 중 34.2%가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상태이며 지난 1년간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청년은 15.0%로, 적지 않은 수의 청년이 심각한 마음건강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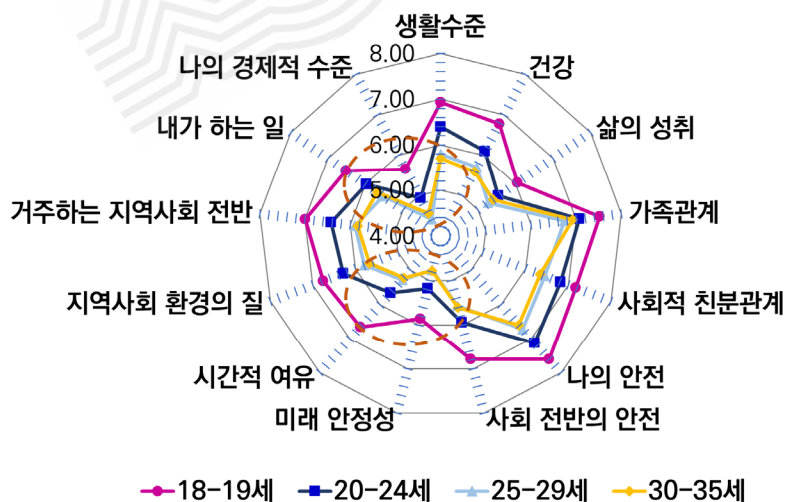
서울 청년이 최근 이슈인 공정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분석한 결과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공정하다는 인식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우리 사회가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를 제공하는지는 62.3%, 사회적 성취에 있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내 노력이 더 중요한지는 60.3%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특히 노력과 관련된 공정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삶의 영역에서는 미래 안전성(4.95점)과 경제적 수준(4.67점)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그림 16] 공정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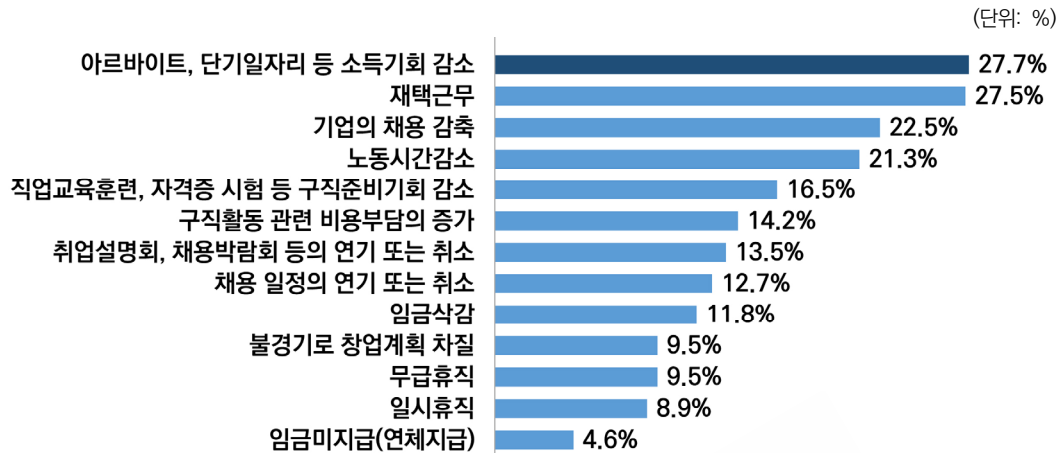
(단위: 0-10점)



[그림 17] 분야별 삶의 만족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득기회 감소 포함 일자리 관련 부정적인 변화 경험

서울 청년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에 부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아르바이트, 단기일자리 등 소득기회의 감소(27.7%)가 가장 많았고, 재택근무(27.5%), 기업의 채용 감축(22.5%), 노동시간 감소(21.3%) 등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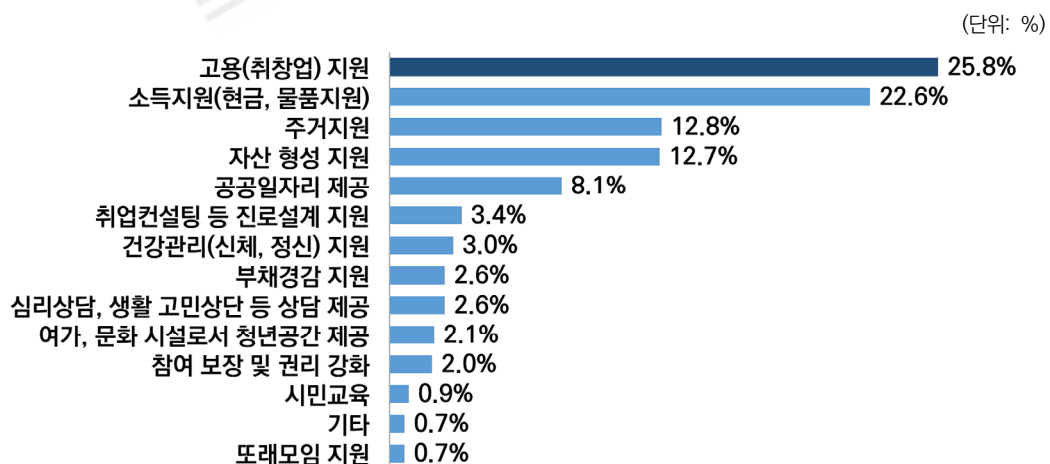


[그림 18]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관련 변화 경험

역세권 청년주택 등 주거분야 지원정책 수요 1위 ... 고용지원 정책 강화 필요

청년지원 정책 중 이용 의향이 가장 높은 사업은 역세권 청년주택(59.1%), 청년임차보조금 지원(55.5%) 등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로는 고용(취·창업) 지원(25.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소득지원(현금, 물품지원)(22.6%) 사업으로 확인됐다.



[그림 19]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

서울청년패널 원데이터 활용한 심층분석으로 청년이슈 기반 정책 함의 도출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는 원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영역을 심층분석하고, 청년이슈와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서울시 청년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분석 주제는 서울시 청년집단의 이질성 연구이다. 청년집단을 부모동거 가구와 비동거 가구로 구분해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집단별로 가장 불안정한 집단을 식별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빈곤 상태인 20대 후반 청년이 가장 불안정한 집단으로 식별되었다.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청년정책의 실효성 파악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방향 개선이 필요하다. 두 번째 분석 주제는 청년의 일자리 이행이다. 청년층의 전반적인 일자리 이행과 관련하여 초기 일자리 이행, 일자리 정착, 일자리 이행과정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수준(교육 프리미엄)이 괜찮은 일자리 이행(첫 직장, 이직)에 미치는 정적(+) 영향, 노동시장 내 청년 취업자 간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상향 이동(이행) 격차를 확인하였다. 이는 청년층 일자리 지원은 단기적 방안이 아닌 중장기적 방안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세 번째 분석 주제는 미취업 청년이 겪는 부채부담에 관한 연구이다. 미취업 청년의 부채부담 실태 전반에 대한 탐색적 분석과 2021년 서울청년패널조사 본조사 대상자 중 연구 주제에 적합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미취업 청년은 부채부담 정도가 높다는 점과 부채부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사회적 고립감, 취약한 정신건강 상태에 처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청년지원 프로그램의 복잡성 개선과 질적 향상, 법률 서비스와 채무 관련 상담 제공 등을 제안한다.

네 번째 분석 주제는 청년세대의 재테크 실천에서 확인되는 불평등이다. 청년의 재테크 실천현황, 재테크로 운용하는 자산과 소득의 크기와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청년 중 47.2%가 하나 이상의 재테크를 실천하고 있다. 자산 종류별 자산 불평등 기여도는 소유부동산(67.6%)이 가장 높았으며, 소득 종류별 자산 불평등 기여도는 근로소득(83.8%)이 가장 높다. 청년들의 개인화된 불안의 집합적 해결을 고민하고,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충족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안정성의 부재라는 문제를 읽어냄으로써 청년들이 재테크에 몰두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한다.